

선장 살인죄 결국 입증못해... 체면 구긴 검찰 즉각 항소 방침

세월호 선고 배경과 전망

이선장 유기치사상·선원법 위반 등 4가지만 유죄 퇴선 지시 여부, 변호인측 주장에 힘실어 줘 형량 낮고 국민 법감정과 차이... "철저 준비" 목소리

재판 초기부터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선원들에 대해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사회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음에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하는 등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에 대해 선고함으로써 1심 재판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사형감'이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검찰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선고의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인터넷과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대량 학살과 같은데, 이게 뭐냐",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관대하냐"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왜 유일행 폭행 사건 주범보다 낮냐=법원은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유일행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대해 군사법원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45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되면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을 묻는 것치고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선장에게는 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 선박매물·수난구호법 위반·선원법 위반·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등 모두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살인미수, 수난구호법, 특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죄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선장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것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승객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지만 이 선장의 퇴선 지시가 있었고 조타실과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 및 해경이 10분 뒤 도착한다는 소식을 사무부 승무원에게 전달했다는 점, 해경이 구조를 개시한 것을 승무원들이 목격해 구조가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대했을 것 등을 제시했다.

이 선장 뿐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김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

씨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씨에게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적용할 경우 유기치사·상의 범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과실 선박매물은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선원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다. 형법에는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죄의 범정 최고형을 더하면 유기치사·상(30년)에 업무상과실 선박매물(3년), 해양환경관리법(3년) 등 징역 36년이 된다. 다만, 선원법 위반의 경우 유기치사·상과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돼 형을 더할 수 없고 가장 무거운 죄명의 범정형 이내에서 선고하게 된다.

윤 일병 사망사건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비교하는 게 무리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검찰 완패...항소=검찰은 살인 혐의, 수난구호법 등에 대한 무죄 판결과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피고인별 죄명 및 선고형

피고인	살인·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물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유기 치사상	선고 결과
선장 이준석	무죄	유죄 (금고형 선택)	무죄	유죄	유죄 (징역형 선택)	유죄	36년
1등 항해사 강○○	무죄	유죄 (금고형 선택)	무죄			유죄	20년
2등 항해사 김○○	무죄		무죄			유죄	15년
3등 항해사 박○○		유죄 (금고형 선택)	무죄		유죄 (징역형 선택)	유죄	10년
조타수 조○○		유죄 (금고형 선택)	무죄		유죄 (징역형 선택)	유죄	10년
1등 항해사 신○○			무죄			유죄	7년
조타수 박○○			무죄			유죄	5년
조타수 오○○			무죄			유죄	5년
기관장 박○○	일부유죄 (유기징역형 선택)					유죄	30년
1등 기관사 손○○						유죄	5년
3등 기관사 이○○						유죄	5년
조기장 전○○						유죄	5년
조기수 이○○						유죄	5년
조기수 박○○			무죄			유죄	5년
조기수 김○○			무죄			유죄	5년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					유죄 (법인의 경우 벌금형만 규정)		1천만원

하지만, 1심 재판 결과로만 보면 검찰 수사가 미흡했거나 여론을 의식, 무리하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밖에 없다. 법원이 살인·살인미수, 수난구호법, 특가법 위반 등 주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 검찰로서는 뼈아픈 일격을 당한 셈이다.

재판부가 검찰이 그동안 제시한 각종 수사 기록 등을 증거물로 삼았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이 선장의 퇴선 지시 여부에 대해 "퇴선지시가 있었다"는 변호인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 검찰은 뒤집을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이 모든 선원들에 대해 적용했던 수난구호법(18조) 위반 혐의도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세월호처럼 조난 선박 자체에 해당하는 선박 승무원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난구호법 해당 조항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도 자연스럽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나마 이 선장의 유기치사·상 혐의는 재판부 권고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적용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체면을 구겼다. 이 때문에 항소 항소심에서는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보완하는 등 공소 유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려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량학살 행위, 살인 아니고 뭐란 말이나"

시민·네티즌 반응

광주지법이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적용,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시도 민들과 네티즌들은 이 선장의 살인죄 무죄 적용에 대해 "어이 없는 결과"라는 반응이다.

이 소식을 접한 정보(37·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구조를 포기하고 먼저 도망친

것은 대량 학살과 같다"면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선장이 끝까지 남아 승객들을 구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선 영화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회사원 김모(43)씨는 "세월호의 책임자는 선장인데, 선장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일부 선원은 유죄가 인정됐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선원들이 세월호의 책임자냐. 295명이 희생됐는데, 고작 36년이라는 말이 되느냐"라고 재판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냉담

했다. 한 네티즌은 광주·전남 주부들의 모임 카페에 올린 글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무서워서 아이들 나들이도 보내지 못하겠다"고 적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한 두 명을 죽인 것도 아니고 몇 백명이 희생됐는데, 가슴이 아프다"라고 울었다.

세월호 판결과 관련, 주요 포털 사이트엔 "이준석 선장, 이게 재판이나 재판이냐", "이준석 선장, 희생자 3명당 1년씩 계산한 건가", "이준석 선장, 법원은 이탈리아 판례 좀 보고 배워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형 선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 등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기대 무참히 무너져 다시 한번 상처받아"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11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에 대한 판결과 관련,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안겨줬다며 울분을 토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선고,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저버렸을 때 자신의 생명도 보전할 수 없다는 진리를 천명해 주길 바랐다"면서 "이번 판결로 가족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피고인들은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 백 명이 사망·실종됐고 생존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일상을 잃어버렸다"며 "국회 등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 나라는 저의 가족의 바람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 선고 결과도 그렇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을 늘어놓아 가족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줬다"며 "검찰이 항소를 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9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형사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주택가 LPG통 폭파 위험 소동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이유로 심야에 주택가에서 빈 LPG 가스통을 갖다놓고 폭파하겠다는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11일 구례경찰청에 따르면 이모(36)씨는 지난 8일 밤 11시20분께 구례군 구례읍 주택가 골목에서 LPG 가스통을 폭파하겠다는 소란을 피운 혐의.

○법원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3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사용한 LPG 가스통을 들고 온 이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오자 "가까이 오지마라. 다가오면 다 죽는다"며 협박했는데, 경찰에서 "열심히 살아도 탈리지는 게 없는 현실이 싫었다"고 진술.

/구례=이성규기자 lsg@

아동·장애인 성폭행 예방

광주지검 오늘 심포지엄

사회적 약자인 아동·장애인들을 향한 성폭행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

까. 광주지검(김사장 변찬우)은 12일 오후 3시 조선대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아동·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광주지검과 조선대 법

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아동·장애인들에 대한 성폭행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행사로, 법원, 변호사, 경찰, 대학교, 사회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기원)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층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립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